



‘시민’으로서 노인

노년층의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참여 동인에 대한 탐색*

민 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 연구는 자발적 시민참여모형을 바탕으로 ‘무엇이 노년층 유권자를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참여로 이끄는지’를 분석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유권자 35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무엇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 등 객관적인 ‘자원’ 요인의 중요성은 낮게 나타난 반면, ‘심리적 동기’가 노년층의 참여적 시민성을 유지하는 데에 더 핵심적인 요인으로 관찰됐다. 특히 스스로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지각은 모든 유형의 정치참여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으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투표 이외 제도적, 비제도적 활동을 포괄한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를 제고했다. 동원 연결망의 효과는 정치참여 유형별로 상이했으나, 전반적으로 가족이나 다양한 사회연결망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미디어 이용의 효과는 투표 참여와 그 외 정치참여로 대비됐다. 투표 참여에 대해서는 노년층이 정치 정보원으로 가장 의존하는 매체 중 하나인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영향력이 유의미했으며, 정치적 의견 표명과 공유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도는 적극적인 유형의 정치활동 참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노년층, 자발적 시민참여모형, 제도적 정치참여, 비제도적 정치참여, 고령사회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145)

** ymin@korea.ac.kr

1. 서론

정치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연령과 상관없이 '정치참여'는 민주적 시민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돼 왔으며(Dalton, 2014; Habermas, 2006), 특히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정치참여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Gonzales, Matz-Costa, & Morrow-Howell, 2015). 그러나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고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면서 노년층의 이해관계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층의 정치적, 정책적 영향력도 증가했다(Campbell, 2003). 노인 정치학(political gerontology) 관점에서 노년층의 정치 행동은 청년층이나 중년층과 차별화되며, 그 차이의 기저에는 연령효과와 세대효과가 공존한다(Goerres, 2006). 연령효과는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며, 세대효과는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연령 코호트(age cohort)가 특정한 정치적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이다. 자발적 시민참여모형(civic voluntarism model)은 개인의 자원(resources), 심리적 동기(psychological engagement), 정당·조직·사회연결망에 의한 동원(recruiting) 등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제시하는데(Verba, Scholzman & Brady, 1995), 연령과 세대에 따라 이 요인들의 상대적 효과는 변하게 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투표 행동이나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막상 '시민'으로서 노년층을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노인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기 단계이고(Serrat, Petriwskyj, Villar, & Warburton, 2017), 특히 노년층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다. 세대 격차 문제와 연결하여 청년층이나 중년층의 정치참여와 비교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만약 노년층의 정치참여 동인과 그 함의가 다른 연령층의 그것과 다르다면,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질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시선을 벗어나 민주주의 정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 사회변화로 '노인정치(gerontocracy)' 현상에 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 문화는 노년층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타자화하고 미디어 역시 부정적인 '노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정진웅, 2014). 최근 한국 사회에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확대되고 노년층의 정치사회적 참여에 대한 편견도 강화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안상현·김은경·안영, 2018, 3, 20). 그러나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획일화된 편견은 오히려 세대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정치참여에 정당하게 주목하고 그 동인(動因)과 역학(力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노년층에 주목한다. 누구를 노년층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인데, 선행 연구들은 대개 생애 주기와 세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연령 만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노년층의 기준점으로 삼거나 전기 노년층(65세~74세)과 후기 노년층(75세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했다(Goerres, 2009; Jennings & Markus, 1988; Nyågrd & Jakobsson, 2013). 고령화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만 60세를 의미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예, 성경룡, 2016; 조주은, 2014; 황현정·황용석, 201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탄핵 정국과 정권교체 이후 최초의 전국 선거가 개최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배경으로 만 60세 이상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참여 양상을 탐색하려 한다. 자발적 시민참여모형에 근거해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한편, 미디어 이용의 특성과 정치참여의 관계에도 주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소위 노인정치가 엘리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서 노년층의 정치참여가 가져오는 경험적, 규범적 함의를 논의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노년층의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참여

2017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우리사회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했다(박대기, 2018, 8, 27).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서구 사회보다도 더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United Nations, 2017).

인구 구성의 변동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세대 균열이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윤상철, 2009). 예컨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구 구성비의 변화는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50~60세대는 그 이전 10년 동안 610만 명 증가했지만 20~30세대는 오히려 155만 명 감소했기 때문이다(성경룡,

2016; 정한울, 2012). 그보다 앞선 2010년 6월 지방선거(이현우, 2010)나 2011년 10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20~40대와 50대 이상의 투표 양상이 뚜렷하게 분화되면서 ‘세대 투표’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세대 간의 상호배타성이 견고해지면서 세대가 거대한 정치 블록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윤성이·심창학·고성규, 2005).

자발적 시민참여모형에 따르면, 정치참여는 “정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 혹은 실제 효과를 가진 활동”이다(Verba et al., 1995, p. 38). 이 때 ‘참여’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으로 공공정책이나 대표 선출 등 정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선행 연구들은 정치참여를 크게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유형화했는데(Conge, 1988; Dalton, 2014), 제도적 참여는 주로 법이나 제도가 규정하는 경로를 통해 정부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적 활동을 의미하며, 비제도적 참여는 통상적인 정치적 경로를 벗어나 좀 더 대격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Bennett, 2012). 제도적 참여는 투표와 투표 이외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투표 외 활동으로는 정당 및 선거캠페인 활동, 정치인 및 관료 접촉이나 민원 제출 등을 꼽을 수 있다. 비제도적 참여에는 청원이나 서명, 합법적 시위나 집회에서부터 불매운동, 점거, 타격, 비합법적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포괄된다(Dalton, 2014). 자발적 시민참여모형은 참여에 필요한 자원, 행동에 수반되는 정보용량, 정치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정치활동을 더 세분화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로 다른 제도적 정치활동과도 구분된다(Verba et al., 1995). 달튼(Dalton, 2014)의 논의에서도 투표는 캠페인 활동이나 정치인 접촉 등과 달리 ‘요청되는 노력’의 정도가 낮은 소극적인 정치활동으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정치참여는 투표 행위로 집중된다. 고령 유권자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정당의 정책이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에서도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는 거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막강한 정치력을 미친다(윤성이·심창학·고성규, 2005; Campbell, 2003). 노년층은 투표 의사결정에서도 다른 연령층과 차별화된다.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은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으며(성경룡, 2016), 특히 고령의 저소득층일수록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않는 보수후보를 지지해 이른바 ‘계급배반’ 투표 경향을 보였다(한귀영, 2013). 강원택(2013) 역시 60대 이상 유권자 층의 강한 보수성이 저소득 계층의 계급배반 투표의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높은 투표율’을 제외하고는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록 자체가 드문 가운데, 2016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촉발된 ‘태극기 집회’는 주목할 만하다. 노년층이 주도한 비제도적

정치활동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를 일종의 ‘인정투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세대와 이념적, 문화적 갈등을 겪는 동시에 생애주기 측면에서는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노년층의 특성에 주목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는 노년층이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정치적 소외감까지 느끼면서 부정당한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받고자’ 사회적 저항에 나섰다(김진욱·허재영, 2018). 결국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소외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노령 계층을 광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인데, 노년층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동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희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드문 사례 중 하나로, 고에레스(Goerres, 2009)는 노년층의 정치참여 유형 중 집회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영국에서 연금 정책에 관련된 집회에 참여했던 노인들을 심층 면접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젊은 세대에 비해 집회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만, 동일한 이해관계(예, 연금 수령자로서 이해관계)를 강하게 추구한다거나 관련된 조직의 연결망 내에 있을 때는 집회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반면 ‘정치적 수동성(political passivity)’ 등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을수록 집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되는 정치참여가 왜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않는 것일까? 투표 행위를 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려는 상황에서, 그들의 참여의 동인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투표 참여가 하나의 규범 행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투표 이외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주목하여 어떤 요인들이 그 기저에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려 한다.

2)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자발적 시민참여모형과 노년층의 정치참여

정치 주체로서 노년층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노년층은 정치성향이 나 행동에서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며,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사회노인학에서는 노년층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Goerres, 2006). 소위 이탈가설(disengagement thesis)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탈은 개인 수준의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사회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노년층은 정치적 위축(political atrophy)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이다. 반면 지속성 가설(continuity theory)에 따르면, 노년층은 자신의 심리적 정향성과 사회적 지위를 견지하기 위해 이전 수준으로 사회참여를 지속한다고 한다(Goerres, 2006).

소위 선택적 철수(selective withdrawal) 가설은 지속성 가설의 입장에서 이탈가설의 주장을 통합한다. 노년층은 어떤 영역의 활동에서는 위축되지만 특정한 영역(예, 투표, 정당 활동 등)에서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Goerres, 2007). 어떤 영역에서 참여를 유지하는지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제닝스와 마커스(Jennings & Markus, 1988)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 참여를 제외하고 선거 캠페인 활동, 집회 참여, 정치슬로건 게시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수준은 모두 감소했다.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달튼(Dalton, 2017)의 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는 증가하는 반면, 정치인이나 관료 접촉, 집회 참여, 인터넷 정치활동 등은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몇몇 연구에서 보고됐으나(김재한, 2011; 이갑윤, 2008), 그 외 유형의 정치참여 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자발적 시민참여모형은 개인적 수준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연결망으로 유형화한다(Verba et al., 1995). 정치참여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일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원할 때, 혹은 타인이 요청할 때'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Dalton, 2014).

첫째, 자원은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 여가 및 시민적 기술(civic skills) 등을 포괄한다. 특히 시민적 기술이란 정치활동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및 조직 능력을 의미하는데(Brady, Verba, & Scholzman, 1995), 교육 수준, 직장 경력 및 종교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에서의 활동 경험이 시민적 기술 함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치활동의 유형에 따라 소요되는 자원의 형태가 상이할 수 있는데, 정치적 후원에는 경제적 자원이 요구되며 정당 및 정치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집회 참여, 투표 등에는 시간적 자원이 요청된다(Brady et al., 1995). 자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과 교육 수준을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Verba, Burns, & Scholzman, 2003), 노년층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가'보다는 '신체적 건강'이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자원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Goerres, 2009).

둘째, 심리적 동기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 및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인 관여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시민의식, 정치신뢰 등을 지칭한다. 특히 정치관

심, 내·외적 정치효능감, 정치지식은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를 진작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들이다(Verba et al., 1995).

마지막으로 동원 요인은 개인의 사회적 자산으로, 직장, 종교단체 및 기타 친목, 취미, 봉사단체 등 개인이 속한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정치 메시지를 접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버바 등(Verba et al., 1995)은 정치참여 동인 중 '자원' 요인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나 세대적 특성에 따라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자발적 참여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동원 연결망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거나(Nygård, & Jakobsson, 2011), 세 범주에 걸쳐 특정한 몇 가지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컨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 21개국에서 노년층의 정치참여를 분석한 고에레스(2009)에 따르면, 거주기간(duration of residence), 건강, 배우자 동거 여부 등이 투표 참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는데, 투표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점차 습관화(habituation)되면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이 교육 수준의 차이를 보완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회나 서명 참여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관찰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감소했으며, 교육 수준, 탈물질적 가치, 건강 상태 등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에레스(2009)가 제시했듯이, 노년층의 정치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어떤 사회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해당 사회의 노년 계층이 어떤 역사적 경험을 겪어 왔으며 현재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환경은 어떠한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특수한 맥락에서 노년층의 정치참여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연령효과와 노년층의 정치참여

'연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정치사회화에 작용하여 사회 변화를 이끄는데, 그 작동 방식을 생애주기효과, 세대효과, 그리고 주기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정치참여 변화에도 생애주기, 세대, 주기효과가 작용하지만, 이 연구는 특히 생애주기 특성에 따라 자발적 시민참여 모형을 제시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노년층 유권자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종단설계를 취하지 않는 연구에서 생애주기효과와 세대효과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생애주기효과는 '나이 들'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결과이다.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연결망 등 정치참여에 미치는 요인들의 양상도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될수록 건강 상태와 경제적 소득 수준은 저하되지만 정치참여에 필요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경험과 기술은 축적된다.

심리적 동기의 측면에서 보자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지식이 풍부해지며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한다. 투표를 '시민의 의무'로 인식하는 규범적 태도도 강화된다. 그러나 연령주의 문화 속에서 노년층 스스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내면화할 가능성도 높아지며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할 수 있다. 특히 '나이 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다양한 인지적, 신체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과 수명까지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Levy, Slade, & Kasl, 2002; Wurm, Warner, Ziegelmann, Wolff, & Schüz, 2013).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다양한 사회참여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Kruse & Schmitt, 2015), 정치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노년층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정도' 역시 정치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에레스(2009)에 따르면, 자신을 '나이 든 사람'으로 규정할수록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동원 연결망의 측면에서 가령(加齡) 효과는 정치참여에 대체로 부정적일 수 있다.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에서 노령 유권자에 대한 캠페인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고령자일수록 직장이나 조직에 소속될 가능성이 적고 배우자 등 동거 가족의 규모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취미, 사교, 봉사,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한다. 또한 각종 미디어 이용 역시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Goerres, 2006).

제닝스와 마커스(Jennings & Markus, 1988)의 패널 연구는 세대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생애주기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동일한 연령 코호트가 약 17년 동안 정치적 특성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정치이슈에 대한 관심도(following public affairs)는 증가했으나 실제 정보추구 행위(예, 신문 열독)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증가에 따라 정치지식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념적 정교화(ideological sophistication) 수준은 다소 증가했으며, 내적, 외적 정치효능감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한편 세대효과는 생애주기효과와는 달리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특정 연령 코호트가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특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내면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윤상철, 2009). 세대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출생 시기보다 청소년기나 초기 성년기, 즉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formative years)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거쳤는지가 더 중요하다. 특정 세대는 그들이 성장한 시대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미디어 경험에 따라 고유한 정치가치와 지향성을 내면화하여 그들만의 정치문화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정치참여 양식을 보인다(Frankin, 2004; Goerres, 2009; Grasso, 2014). 예컨대, 서구에서 시민운동이 폭발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장한 세대는 그 전후 세대들에 비해 시위, 청원, 사회운동 등 비제도적인 정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Grasso, Farrall, Gray, Hay, & Jennings, 2018). 대체로 새로운 세대일수록 제도정치 권위는 크게 존중하지 않는 반면 비전통적이고 대안적인 정치 활동에 더 개방적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환경에서 사회화된 세대는 탈물질적 가치(post-materialist values) 등 새로운 정치문화와 가치를 습득하기 때문이다(Bennett, Wells, & Rank, 2009; Dalton, 2014).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이른바 '386세대'가 제도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적 세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세대별 이념적 추이를 분석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쟁세대(1941년 이전 출생)', '전후 산업화 세대(1942~1951년 출생)', '유신세대(1952~1959년 출생)'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생애주기효과를 나타낸 반면 '386 세대(1960~1969년 출생)'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보수화 경향을 보이지 않아 '세대'로서의 고유성과 지속성을 드러냈다(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이준한, 2013, 2014). 즉 지금 우리사회의 노년층을 구성하는 세대는 성장기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심한 정치적, 이념적 부침과 경제적 고통을 겪었지만, 현재의 정치 행동에서는 세대적 특성보다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요인들이 노년층의 제도적(투표, 투표 외),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자발적 시민참여모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요인들과 함께, 선행 연구(예, Goerres, 2009)를 참조하여 가령(加齡)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자원 요인으로는 소득, 교육수준 및 건강 상태를 포함시키고, 심리적 동기로는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등과 함께 노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인으로서의 정체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할 것이다. 동원 연결망 요인으로는 직업 여부, 동거 가족 규모,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함께 연결망 내에서 일상적인 정치대화를 얼마나 자주 나누는지 등에 주목할 것이다. 중요한 동원 요인의 하나인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은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3)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

연령 효과는 '미디어 영역'에도 존재한다. 김영주와 정재민(2006, 12쪽)은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인들이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가 사회커뮤니케이션 망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미디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노년층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성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보 유통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민영, 2011; 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 2012).

미디어 이용에서 나타나는 연령 격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2014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the millennial generation, 1981년 이후 출생), X세대(1965~1980년 사이 출생) 및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사이 출생)를 대상으로 정치뉴스 정보원을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밀레니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60%와 39%가 각각 지역방송과 페이스북을 가장 의존하는 정보원으로 꼽은 반면, 밀레니엄 세대의 선호도는 정확히 반대로 나타났다(Mitchell, Gottfried, & Matsa, 2015).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65세 이상 노년층은 케이블(43%), 지상파(17%), 지역방송(10%) 등을 망라한 방송뉴스에 가장 의존한 반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은 소셜미디어(35%)와 뉴스사이트 및 앱(18%)에 가장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Gottfried, Barthel, Shearer, & Mitchell, 2016).

우리나라 조사 결과 역시 미디어 이용에서 연령 격차를 보여준다. 약 10여 년 전인 2005년에 만 60세 이상 601명을 조사한 결과, 90%가 넘는 응답자가 뉴스나 정보를 얻는 주 매체로 텔레비전을 꼽았다. 컴퓨터 보유율은 43.1%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가능 비율은 7%에 그쳤다(김영주·정재민, 2006).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디어패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텔레비전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률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지형·김윤화·오윤석, 2017). 2017년 기준으로 휴대폰 보유율은 60대에서 97.2%, 70대 이상에서 79.7%에 달했고,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애플리케이션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60대에서는 3.7%에 그쳐 상당히 보편화됐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매체 선호도에 있어서는 연령 격차가 여전히 뚜렷해서, 방송 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60대 이상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디지털 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포털이나 SNS를 통해 대선 뉴스를 접한 정도에서는 연령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아 노년층의 디지털 매체 이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민영·채영길·김현정·유용민, 2017).

노년층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플랫폼과 노년층을 연계하고 있다. 선행 연구가 주로 교류 목적이나 정보(특히 건강 정보) 획득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층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조명한 가운데(e.g., Leist, 2013; Trentham et al., 2015), 노년층이 사회참여나 정치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연령주의 편견이 소셜미디어 이용 규범이나 문화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Levy, Chung, Bedford, & Navrazhina, 2014), 새로운 공론장에서 노년층이 소외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에서 일부 노년층이 소셜미디어를 정치적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상은 흥미롭다. 2018년 8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1%가 유튜브 동영상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애·오세욱, 2018). 노년층의 제도언론 불신이 높아지면서 방송이나 신문 등 전통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카카오톡, 밴드 등의 폐쇄형 메신저를 통해 세대 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최민우, 2017, 3, 17). 노령 계층이 정치 정보원으로서 의존하지 않던 디지털 플랫폼이 동질적인 세대 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서 정치참여의 중요한 동원 경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정보적 미디어 이용은 중요한 동원 요인의 하나로서 정치참여와 긍정적 관계를 가진다. 특히 뉴스 이용은 정치지식과 정치관심을 높이고 정치대화를 촉진시켜 정치적, 시민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de Vreese & Hoomgaarden, 2006; Shah et al., 2007), 그러나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에 집중하여 그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은 대체로 정치참여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Boulianne, 2009, 2015), 이 효과는 적극적인 이용자층인 젊은 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층의 미디어 이용,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이나 정치적 소통이 정치참여를 위해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치참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이 노년층의 투표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이 노년층의 투표 외 제도적 정치활동(정당·후보 후원, 민원 등)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이 노년층의 비제도적 정치활동(집회 및 시위, 서명 등)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 절차와 표본의 특성

이 연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배경으로 노년층의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서울시 유권자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2018년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연령과 주거지역(서울시 25개구)으로 할당된 비율로 표본이 구축됐으며, 5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가 진행됐다. 성별 분포는 남성 46.6%, 여성 53.4%였으며, 연령별로는 만 60~64세 32.3%, 65~69세 23.1%, 70~74세 17.7%, 75세 이상이 26.9%로 분포됐다. 평균 연령은 68.98세($SD = 6.36$)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논의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됐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1) 자원, 심리적 동기, 동원 연결망

첫째, 자원은 정치참여에 필요한 경제적, 시민적 능력을 의미하며 주로 개인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Verba, Burns, & Schlozman, 2003). 이 연구는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되는 소득 및 교육수준과 함께 노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 상태를 주요 변인으로 측정했다. 소득은 개인의 세금 납부 전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했으며, 응답자들은 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버바 등(Verba et al., 1995)에 따라 시민적 기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교육 수준을 6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49.4%,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11.2%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여섯 항목의 신체 활동(가사노동, 육아, 산책, 외출, 정기적 운동 등)에 대해 활동 여부(활동 가능 = 1점)를 측정하여 합산했다. 이는 노인건강척도(Health Scale for the Aged)에 포함된 항목들을 현재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Rosow & Breslau, 1966; Levy, Slade, & Kasl, 2002 재인용).

둘째, 개인의 정치적 태도 및 관여도를 나타내는 심리적 동기의 지표로 가장 보편적인 변인인 정치관심, 내·외적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등을 측정했다. 정치관심은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문항을 따라 '평소 정치나 정부 활동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정치지식은 국회 다수당, 투표 최저 연령, 개헌 절차 등에 대한 일

반 지식(4항목)과 최근 정부의 외교활동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의적 지식(2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정답을 제시했을 경우 1점을 주어 여섯 항목에 대한 값을 합산한 값을 정치지식 수준으로 간주했다. 선행 연구(Jung, Kim, & Gil de Zúñiga, 2011; Kensiki & Stroud, 2006)를 따라, 내적 정치효능감은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와 '나는 중요한 정치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등 두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했다(4점 척도). 외적 효능감은 '정치인들은 나 같은 일반 시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와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해봤자 소용없다' 등 두 항목으로 측정했으며 역 코딩하여 평균치를 산출했다.

한편 노년층 유권자의 생애주기 특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동기를 고려하기 위해, 스스로 인식하는 '노화의 경험과 '노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측정했다. 먼저 노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노인용 사기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중 일부 항목을 사용했다(Levy, Slade, Kenkel, & Kasl, 2002). 구체적으로, '내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 나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역코딩)',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감을 느낀다' 등의 여섯 항목을 활용했으며, 각각에 '예'(1점), '아니오'(0점)로 답변하게 하여 이를 합산했다. 값이 커질수록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스스로를 노년층으로 생각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노인 정체감'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구축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경제, 건강, 가족 문제 등을 포함한 자신의 현재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역시 측정했다.

셋째, 직장, 가족 및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정치 메시지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동원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해 고용 여부(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및 동거 가족 규모와 함께 다양한 사회연결망 참여 정도에 주목했다. 먼저 고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소속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하는 가족 수는 개방형으로 측정했다.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연결망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e.g., Goerres, 2009; Verba et al., 1995)가 강조한 종교나 자원봉사활동 외에도 학습, 취미, 친목 활동 등(총 10항목)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했다. 각 활동 별로 1년에 2-3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전체를 합산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개 정도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사회연결망 내에서 정치 메시지를 접하는 정도를 기능하기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가족 및 지인들과 정치나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했다.

(2) 미디어 이용

동원 요인의 하나인 미디어를 통해 정치 메시지를 접하고 참여 기회를 확장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위를 측정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종이신문,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한 정도를 각각 8점 척도로 측정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포털, SNS, 유튜브/인터넷 게시판, 카카오톡/밴드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한 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디지털 뉴스 이용’을 나타내는 변인을 구축했다. 타인들과의 정치적 소통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카톡, 밴드, 인터넷에 정치나 선거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 올린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적 특성

요인	독립/종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문항 간 신뢰도
자원	소득	3.56	2.41	1-12	.77
	교육수준	3.52	0.96	1-6	
	신체적 건강 (6항목)	5.01	1.37	0-6	
심리적 동기	정치관심	3.10	1.06	1-5	.52
	정치지식 (6항목)	2.41	1.52	0-6	
	내적 정치효능감 (2항목)	2.78	0.44	1.5-4	
	외적 정치효능감 (2항목)	2.10	0.53	1-4	
	노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 (6항목)	1.76	1.71	1-6	
	노인 정체감	2.63	0.71	1-4	
동원 연결망	삶에 대한 만족도	3.29	0.70	1-5	.61
	직업 여부	0.48	-	0-1	
	동거 가족 규모	2.47	1.14	1-7	
	사회연결망 참여 (10항목)	2.04	1.22	0-7	
	연결망 내 정치대화	1.86	0.66	1-4	
	종이신문 이용	1.51	2.64	0-7	
	지상파 채널 이용	5.19	1.73	0-7	
	중편 및 보도전문채널 이용 (3항목)	4.82	2.14	0-7	
	디지털 뉴스 이용 (4항목)	1.07	1.58	0-7	
모바일·인터넷 정치적 소통	1.04	0.20	1-4		
정치 참여	투표 참여	3.01	0.81	1-4	.79
	투표 외 제도적 정치참여 (2항목)	1.18	0.44	1-3.5	
	비제도적 정치참여 (2항목)	1.26	0.51	1-3.5	

1) 신뢰도 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항이 선행 연구(예, 양정애·이현우, 2013; Jung et al., 2011; Kensiki & Stroud, 2006)에서 내적 정치효능감 지표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음을 고려하여 합산하여 사용했다.

(3) 정치참여

앞서 논의한 대로 정치참여를 투표 및 투표 외 제도적 활동과 비제도적 활동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에 대해 향후 참여 의사를 측정했다. 먼저 투표 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이용했으며 투표 외 제도적 정치참여 의사는 '정치인·정당을 위한 후원이나 자원봉사'와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달' 등 두 항목으로 측정했다. 비제도적 정치참여 의사는 '정치 사안에 대한 서명 참여'와 '집회나 시위 참여' 등 두 항목으로 측정했다. 모두 4점 척도(매우 낮다~매우 높다)를 이용했다.

4. 연구결과

만 60세 이상 서울시 유권자의 정치활동 수준을 향후 참여의사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투표 참여의사가 투표 외 제도적 정치참여나 비제도적 정치참여 의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t(349) > 37.79, ps < .001$). 흥미롭게도 향후 정치 사안에 대한 집회 및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정당 및 선거 관련 활동이나 정치인 접촉과 같은 제도적 활동 참여의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t(349) = 3.70, p < .001$). 노년층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어떤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치참여 유형별로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인들은 표준화됐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 투표 참여의 동인: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은 자발적 시민참여모형에 따른 정치참여 동인들이 노년층의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설정됐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자원보다는 심리적 동기와 동원연결망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요인 중에는 '소득 수준'의 효과만이 유의미했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참여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경제적 자원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낮아졌다($\beta = -.20, p < .001$). 심리적 동기 요인 중에서는 내적 정치효능감의 효과가 가장 뚜렷했다. 즉 자신의 정치적 역량에 자신감을 가질수록 투표 참여의사가 높아졌다($\beta = .21, p < .001$). 또한 스스로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투표 참여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 p = .004$). 자신이 노년층에 속해 있다고 인식할수록 가장 기본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동원 요인 중 사회연결망의 효과는 가족에 한해서만 미약하게 확인됐는데, 동거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투표 참여의사가 다소 높아졌다($\beta = .09, p = .069$).

한편 일부 미디어 이용 변인 역시 투표 참여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유권자는 선거 정보원으로 지상파 방송채널(67.1%)과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채널(31.8%)에 가장 의존했는데, 이 중 종편 및 보도채널 이용량만이 투표 참여의사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beta = .29, p < .001$). 포털, SNS, 유튜브/인터넷 게시판, 카톡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한 정도는 투표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등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보를 공유한 경험은 향후 각종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의사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beta = -.11, p = .043$).

표 2. 노년층의 제도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선거에서 투표 참여				투표 외 제도적 참여			
		B	β	SE	t	B	β	SE	t		
자원	소득	-.16	-.20	.05	-3.52**	-.01	-.02	.03	-0.38		
	교육	-.02	.02	.05	-0.28	-.02	-.04	.03	-0.57		
	건강	.06	.07	.05	1.31	-.03	-.07	.02	-1.21		
ΔR^2 (%)		2.5*				.04					
심리적 동기	정치관심	.04	.05	.04	0.97	.03	.06	.02	1.10		
	정치지식	.02	.02	.05	0.37	-.03	-.06	.03	-1.03		
	내적 정치효능감	.17	.21	.04	3.88***	.09	.20	.02	3.67***		
	외적 정치효능감	-.02	-.02	.04	-0.44	.01	.02	.02	0.29		
	긍정적 노화 인식	.05	.06	.05	1.08	.07	.17	.03	3.00**		
	노인 정체감	-.13	-.16	.05	-2.88**	-.05	-.10	.03	-1.80†		
	삶에 대한 만족도	.01	.02	.04	0.30	-.07	-.16	.02	-2.82**		
ΔR^2 (%)		9.7***				13.5***					
동원 연결망	고용	.02	.01	.09	0.21	-.05	-.05	.05	-0.94		
	동거가족 규모	.08	.09	.04	1.82†	.00	.02	.02	0.03		
	사회연결망 참여	.05	.07	.04	1.26	.05	.10	.02	1.90†		
	연결망 정치대화	.06	.08	.04	1.39	.05	.10	.02	1.89†		
	종이신문 이용	-.07	-.09	.04	-1.62	-.02	-.06	.02	-1.01		
	지상파뉴스 이용	.03	.04	.04	0.72	-.06	-.13	.02	-2.42*		
	종편/보도채널이용	.23	.29	.04	5.51***	.00	.01	.02	0.15		
	디지털 뉴스 이용	.00	.00	.055	0.08	.02	.05	.03	0.80		
	모바일·인터넷 정치적 소통	-.09	-.11	.04	-2.01*	0.07	.15	.02	2.88**		
ΔR^2 (%)		10.9***				6.4**					
<i>adj. R</i> ² (%)		18.1				16.4					
<i>F</i>		4.69***				4.26***					

주: N = 350. SE = 표준오차; 성별과 연령변수 통제.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투표 외 제도적 정치참여의 동인: <연구문제 2>

투표 외 제도적 정치참여(정당·후보자 관련 활동, 정치적 민원 제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

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표 2〉 참조). 자원이나 동원 연결망보다는 심리적 동기 부여가 더 중요한 참여 동인으로 관찰됐으며, 특히 내적 정치효능감의 효과가 뚜렷했다($\beta = .20, p < .001$). 노년층 유권자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적 동기 요인 중, 노화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투표 이외 제도적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beta = .17, p = .003$). ‘노인 정체감’, 즉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beta = -.10, p = .073$). 자신의 현재 상황, 즉 재정, 가족, 건강 등을 모두 포함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아지는 경향도 유의미했다($\beta = -.16, p = .005$). 동원 요인 중에는 사회연결망 참여가 활발할수록($\beta = .10, p = .059$), 그리고 연결망 내에서 정치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눌수록 참여의사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 p = .060$).

투표 이외 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이용의 효과는 〈연구문제 1〉의 결과와 상반된다. 먼저 방송매체 중 지상파 방송뉴스 이용이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beta = -.13, p = .016$),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이용의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정치 관련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소통을 한 경험은 정당·후보자 캠페인이나 정치인 접촉 등의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beta = .15, p = .004$).

표 3. 노년층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B	β	SE	t
자원	소득	-.06	-.11	.03	-1.94†
	교육	.04	.07	.03	1.08
	건강	.00	.01	.03	0.15
ΔR^2 (%)		.02			
심리적 동기	정치관심	.08	.15	.03	2.88**
	정치지식	-.02	-.04	.03	-0.64
	내적 정치효능감	.08	.16	.03	2.96**
	외적 정치효능감	.01	.03	.03	0.49
	긍정적 노화 인식	.06	.12	.03	2.11*
	노인 정체감	-.03	-.06	.03	-0.98
	삶에 대한 만족도	-.07	-.13	.03	-2.39*
ΔR^2 (%)		11.9***			

독립변인		B	β	SE	t
동원 연결망	고용	.02	.02	.06	0.42
	동거가족 규모	.05	.10	.03	1.99†
	사회연결망 참여	.03	.07	.03	0.95
	연결망 정치대화	.05	.10	.03	1.89†
	종이신문 이용	-.02	-.04	.03	-0.81
	지상파 이용	-.05	.10	.03	-1.94†
	종편/보도전문채널 이용	.03	.06	.03	1.16
	디지털 뉴스 이용	-.01	-.02	.03	-0.41
	모바일·인터넷 정치적 소통	.11	.22	.03	4.16***
ΔR^2 (%)					8.5***
adj. R^2 (%)					17.5
F					4.54***

주: N = 350. SE = 표준오차; 성별과 연령변수 통제.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동인: <연구문제 3>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동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원 요인의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다만 소득 수준의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관찰됐는데($\beta = -.11$, $p = .053$),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 의사가 다소나마 높아졌다.

심리적 동기 요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내적 정치효능감($\beta = .16$, $p = .003$)과 함께 정치관심의 효과($\beta = .15$, $p = .004$)가 관찰됐다. 즉 집회나 시위 참여나 서명 및 청원운동 참여에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화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긍정적인일수록 비제도적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난 반면($\beta = .12$, $p = .035$), 자신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을수록 비제도적 정치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증가하는 경향도 관찰됐다($\beta = -.13$, $p = .017$). 동원 연결망 요인 중에는 가족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나 관찰됐다.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beta = .10$, $p = .066$),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과 정치나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눌수록($\beta = .10$, $p = .060$), 비제도적 정치참여 의사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의 효과는 <연구문제 2>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상파 뉴스 이용량이 많을수록 대안적 정치활동 참여의사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beta = -.10$, $p = .054$), 모바일 메신저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을수록 집회나 서명운동 등 정치적 항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높아졌다($\beta = .22$, $p < .00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 소통을 하는 활동이 비제도적 정치활동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5. 결론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노년층의 정치참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이 체계적인 분석을 앞서면서, 참여의 동학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거나 노년층의 정치참여를 건강한 노화의 요소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 정치는 고령사회의 정치 지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 때문에, '무엇이 노년층 유권자를 참여로 이끄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년기의 참여적 시민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350명의 서울 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유권자 35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첫째, 유형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자원 요인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 투표 참여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은 노년층 유권자가 가장 기본적인 참여 형태인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은 20대부터 50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60대 이후에는 다소 하락하지만,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표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편이다(이갑윤, 2008).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은 노년층의 투표율 유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은 선행 연구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예외적이다(Kasara & Suryanarayan, 2015). 대체로 투표에 소요되는 인지적, 물질적 비용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정당이 우세한 정치 지형에서는 소득집단 간 투표율의 차이가 줄어들다고 한다(Anderson & Beramendi, 2012).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우호적인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ies)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정당이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투표율은 상승할 수 있다. 물론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노년층은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투표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축적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수준과 투표 참여의 관계가 약화될 여지가 높다.

교육 수준이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은 정치참여에 매우 유의미한 예측요인이며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Verba et al., 1995), 노년층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것이다. 고에레스(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는데, 생애 동안 축적된 경험이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메웠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동인 중에는 정치적 효능감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자기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영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투표를 비롯한 제도적 정치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의사 모두가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효능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Jennings & Markus, 1988)를 감안하면, 집합적인 수준에서 효능감은 노년층의 참여에 부정적인 가령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정치효능감은 노년층이 참여적 시민성을 유지하는 데에 정치관심이나 정치지식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들도 정치참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정체감'과 '노화에 대한 주관적 경험'은 참여적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상당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노인이라 인식하는 것'은 투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투표 외 제도적 참여나 집회 및 서명운동 등 비제도적 정치참여 의사가 높아졌다. 주관적인 노화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 가족, 건강 등 개인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투표 이외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과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동기를 노년층의 상실감과 소외감에서 찾았던 논의와 일정 부분 맞닿는다(예, 김진욱·허재영, 2018).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부양공동체로서 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노년층이 겪게 된 어려움이 탄핵반대 집회 참여의 기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완배, 2017, 2, 21).

셋째, 동원 연결망의 효과는 정치참여 유형별로 상이했으나, 전반적으로 가족이나 다양한 사회연결망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봉사, 취미, 친목 등 비정치적 활동 참여는 정치적 활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e.g., Bukov, Maas, & Lampert, 2002),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제한적으로만 나타났다.

넷째, 동원 요인의 하나인 미디어 이용의 효과는 투표와 그 외 정치참여로 대비되어 나타났다. 특히 방송매체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투표 참여에 대해서는, 노년층이 정치 정보원으로 가장 의존하는 매체 중 하나인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영향력이 매우 유의미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됐음을 감안할 때, 가장 손쉽게 오래 접하는 정보원이 동원 효과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해당 채널들이 정치시사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노인 시청자 층을 흡수해 온 만큼(김완, 2016, 3, 30), 노년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공고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년층이 정보원으로 가장 의존하는 지상과 방송뉴스는 투표 외 제도적 정치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지상과 뉴스를 자주 접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려는 의사를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이신문의 효과 역시 매우 미미해서, 전통적 매체가 아닌 정파적인 틈새매체가 노년층을 정치참여로 동원하는 효과를 가지는지가 흥미로운 관찰의 지점으로 확인됐다.

한편 포털,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의 효과는 매우 미미했지만, 카톡, 밴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치나 선거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험, 즉 정치적 의견 표현 및 공유 활동은 향후 정치참여 의사에 유의미한 효과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투표 참여에는 부정적 효과를, 그 외 정치참여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요청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탄핵 국면 이후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노년층이 확장편향을 실현하고 세대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박현철, 2018, 8, 18; 양정애·오세욱, 2018; 최민우, 2017, 3, 17). 노년층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 소통을 할수록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은 증가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보다는 집회 등 좀 더 대결적인 형태의 비제도적 정치활동이나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년층의 정치참여는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로 유형화하기보다 소극적, 적극적 정치참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정치참여 동인이 투표와 그 외 정치참여로 구분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버바 등(Verba, Nie, & Kim, 1978)의 분류를 참조하여 달튼(2014)은 정치활동을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했는데, 제도적 범주 내의 선거 캠페인 활동, 정치인 접촉 등과 비제도적 범주 내의 집회 참여는 참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정보)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노년층에게 투표는 이미 규범화되고 습관화된 활동이기 때문에 연령 상승에 따른 참여율 저하가 뚜렷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을 요구하는 적극적 정치활동에서는 참여율이 좀 더 급속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 양식을 구분함에 있어 해당 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년층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척박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인 시도로서 의미를 가지며, 노년층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무엇보다 자원이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주관적인 영역인 심리적 동기가 참여적 시민성을 유지하는 데에 더 핵심적이라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과 영

향력에 대한 지각은 모든 유형의 정치참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좀 더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동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을 통한 노년층의 정치적 소통이 참여적 시민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 간 대화보다는 세대 내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치적 극화나 고립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 역시 내포한다. 무엇보다 ‘누구를 노년층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임에도 선행 연구에 기대어 만 60세 이상으로 다소 편의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급속히 고령화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시 유권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것도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며, 한 시점 연구이기 때문에 노년층이라는 생물학적 연령효과만을 고려했을 뿐 그를 넘어서는 세대효과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노년층만을 다룬 연구이기 때문에 참여의 동인이 연령대 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했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자원 요인의 낮은 설명력이 노년층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연령층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것인지는 향후 연령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할 것이다. 대면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작동하여 일부 민감한 변인들(예, 소득, 교육, 정치참여 등)에 대한 측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

후속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내면화하고 있는 연령 경험과 세대 경험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스스로의 노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미디어 이용에서 어떤 경험을 겪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해당 연령층이 어떠한 가치와 정치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풍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참여를 통해 얻는 경험을 내밀하게 탐색함으로써 노년층에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혹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탄핵 국면 이후 가시화된 노인들의 대안적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가 차츰 진행되면서(예, 김진욱·허재영, 2018; 최현숙, 2016),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소통에 나서고 있는 노년층의 특성, 동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상세하게 조명하는 것이 후속 연구의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2) 전국적으로 만 65세 이상 10,000명 이상(서울 지역 1,886명)을 대면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와 이 조사의 65세 이상 응답자($n = 237$) 특성을 비교했을 때, 유사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경우 제3오분위가 1,508만원~2,331만원(<노인실태조사>)과 1,200~2,400만원(본 연구)으로 겹치는 반면, 교육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견됐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11.5% 대 8.0%)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23.0% 대 39.7%)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권 3호, 5-28.
-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인권위 연구서 18-30). URL: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media/img/CAT000000044108?metsno=000000001273&fileid=M00000001273_FILE000001
- 김완 (2016, 3, 30). '추파' 던지는 '실버산업' 종편. <한겨레21>. URL: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431.html
- 김영주·정재민 (2006). <노인과 미디어: 노인들의 미디어 이용과 복지> (연구서 2006-03).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재한 (2011). 투표율의 연령 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183-206.
- 김주현 (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권 1호, 53-75.
- 김진옥·허재영 (2018). 인정을 위한 저항. <한국정치학회보>, 52권 2호, 53-80.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113-140.
- 민영 (2011).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 접근, 활용,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권 1호, 150-187.
- 민영·채영길·김현정·유용민 (2017). <2017년 대선 보도 및 선거 뉴스 유통 연구> (지정 2017-09).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대기 (2018, 8, 27). 한국, '고령사회' 공식 진입...생산 인구는 첫 감소 전환. <KBS 뉴스>. UR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9952>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권, 10-34.
- 박현철 (2018, 8, 18). 태어나 '말보다 먼저 배운' 유튜브, 우린 갓튜브 제국에 산다. <한겨레신문>.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146.html
- 방준호 (2017, 2, 6). "태극기 집회 노인들 외침은 일종의 인정투쟁." <한겨레신문>.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571.html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7-53). URL: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성경룡 (2016). 사회집단과 정치권력: 변화하는 선거연합과 투표기제, 대통령 선거(1992-2012) 분석. <한국사회학>, 50권 1호, 1-39.

- 신지형·김윤화·오윤석 (2017). <2017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정책자료 17-11-02).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상현·김은경·안영 (2018, 3, 20). 노인 보는 청년 시선이 어둡다. <조선일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7/2018031700236.html
- 양정애·오세욱 (2018).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미디어이슈>, 4권 8호, 1-17.
- 양정애·이현우 (2013). 크로스플랫폼 뉴스소비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 격차. <한국방송학보>, 27권 5호, 162-203.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 사회>, 81권, 61-88.
- 윤성이 (2012). 소셜 네트워크(SNS) 정치와 2040세대. <계간 시대정신>, 봄호. URL: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201&num=562>
- 윤성이·심창학·고선규 (2005). <고령층의 정치성향 및 세력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7-06).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갑윤 (2008). 한국 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 참여. <의정연구>, 14권 2호, 93-115.
- 이승훈 (2017). AIP(aging in place)에 대한 주관적 기대와 의미: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7권 1호, 135-163.
- 이완배 (2017, 2, 21). 길바닥 보수의 광기, 누가 우리시대의 노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민중의 소리>. URL: <http://www.vop.co.kr/A00001125365.html>
- 이준한 (2013). 한국의 이념성향과 생애주기효과: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정치정보연구>, 16권 2호, 1-26.
- 이준한 (2014). 한국 이념의 보수화와 생애주기효과: 2004, 2008, 2012년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7권 1호, 27-48.
- 정진웅 (2014).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고령화 시대의 노년 연구에 대한 제언. <보건사회연구>, 34권 3호, 452-476.
- 정환울 (2012).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10년 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최우한다. <EAI 오피니언 리뷰>, 7월호, 1-13.
- 조주은 (2014). 정보 격차의 확대재생산. <한국사회학>, 48권 5호, 211-242.
- 최민우 (2017, 3, 17). 광장 내몰린 어르신들...정치가 부추긴 세대 계급의 희생자. <중앙일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378152>
- 최현숙 (2016). <할배의 탄생: 어르신과 끈대 사이,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 서울: 이매진.
- 한귀영 (2013).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동향과 전망>, 10월호, 9-40.

황용석 · 박남수 · 이현주 · 이원태 (201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198-225.

황현정 · 황용석 (2017). 노인집단 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사회과학연구>, 24권 3호, 359-386.

Anderson, C. J., & Beramendi, P. (2012). Left parties, poor voters,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6), 714-46.

Bennett, W. L. (2012).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Political identity, social media, and changing patterns of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4(1), 20-39.

Bennett, W. L., Wells, C., & Rank, A. (2009). Young citizens and civic learning: Two paradigms of citizenship in the digital age. *Citizenship Studies*, 13(2), 105-120.

Bhatti, Y., & Hanse, K. M. (2012). The effect of generation and age on turnout to the European parliament: How turnout will continue to decline in the future. *Electoral Studies*, 31, 262-272.

Boulianne, S. (2009). Does Internet use affect engagement? A meta-analysis of research. *Political Communication*, 26(2), 193-211.

Boulianne, S. (2015). Social media use and participation: A meta-analysis of current research.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5), 524-538.

Brady, H., Verba, S., & Schlozman, K.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Bukov, A., Maas, I., & Lampert, T. (2002). Social participation in very old ag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From BAS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6), 510-517.

Campbell, A. L. (2002). Self-interest, social security, and the distinctive participation patterns of senior citize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3), 565-74.

Campbell, A. L. (2003). *How policies make citizens: Senior political activism and the American welfare stat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lton, R. J. (2014).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 industrial democracies* (6th ed.). Washington, DC: CQ Press.
- Dalton, R. J. (2017). *The participation gap: Social status and political inequali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de Vreese, C., & Boomgaarden, H. (2006). News, political knowledge and participati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news media exposure on political knowledge and participation. *Acta Politica*, 41(4), 317-341.
- Franklin, M.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erres, A. (2006). *Political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Europ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K.
- Goerres, A. (2007). Why are older people more likely to vote? The impact of ageing on electoral turnout i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9(1), 90-121.
- Goerres, A. (2009).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Europe: The greying of our democracies*.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Gonzales, E., Matz-Costa, C., & Morrow-Howell, N. (2015).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for the productive engagement of older adults: A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The Gerontologist*, 55(2), 252-261.
- Gottfried, J., Barthel, M., Shearer, E., & Mitchell, A. (2016). *The 2016 presidential campaign: A news event that's hard to miss*.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m.org/2016/02/04/the-2016-presidential-campaign-a-news-event-thats-hard-to-miss/>
- Grasso, M. T. (2014). Age, period and cohort analysis in a comparative context: Political genera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repertoires in Western Europe. *Electoral Studies*, 33, 63-76.
- Grasso, M. T., Farrall, S., Gray, E., Hay, C., & Jennings, W. (2018) Socialization and generational political trajectories: An age, period and cohort analy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Britain.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Advance online publ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7457289.2018.1476359>

- Habermas, J. (2006). Political communication in media society: Does democracy still enjoy an epistemic dimension? The impact of normative theory on empirical research. *Communication Theory*, 16, 411-426.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nnings, M. K., & Markus, G. B. (1988). Political involvement in the later years: A longitudinal surve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2), 302-316.
- Jennings, M. K. (1979). Another look at the life cycl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4), 755-771.
- Jung, N., Kim, Y., & Gil de Zúñiga, H. (2011).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and efficacy i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4(4), 407-430.
- Kasara, K., & Suryanarayan, P. (2015). When do the rich vote less than the poor and why? Explaining turnout inequality across the Worl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13-627.
- Kenski, K., & Stroud, N. J. (2006). Connec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efficacy,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0(2), 173-192.
- Kruse, A., & Schmitt, E. (2015). Shared responsibility and civic engagement in very old age.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2(1-2), 133-148.
- Lau, R. R., & Redlawsk, D. P. (2006). *How voters decide: Information processing during election campaign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ist, A. K. (2013). Social medial use of older adults: A mini-review. *Gerontology*, 59(4), 378-384.
- Levy, B. R., Chung, T., Bedford, T., & Navrazhina, K. (2014). Facebook as a site for negative age stereotypes. *The Gerontologist*, 54(2), 172-176.
- Levy, B. R., Slade, M. D., & Kasl, S. V. (2002). Longitudinal benefit of positive self-perceptions aging on functional healt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5), 409-417.
- Levy, B. R., Slade, M. D., Kunkel, S. R., & Kasl, S. V. (2012). Longevity increased by

-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261-270.
- Mitchell, A., Gottfried, J., & Matsa, K. E. (2015). *Millennials and political news: Social media-the local TV for the next generation?*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m.org/2015/06/01/millennials-political-news/>
- Nygård, M., & Jakobsson, G. (2013). Senior citize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a Finnish regional study. *Ageing & Society*, 33(1), 159-180.
- Rossi, F. M. (2009).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this the end of generational cleavage?. *International Sociology*, 24(4), 107-131.
- Quintelier, E. (2007).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young and old people. *Contemporary Politics*, 13(2), 165-180.
- Serrat, R., Petriwskyj, A., Villar, F., & Warburton, J. (2017). Barriers to the retention of older participants in political organisations: Evidence from Spain. *Ageing & Society*, 37(3), 581-606.
- Shah, D. V., Cho, J., Nah, S., Gotlieb, M. R., Hwang, H., Lee, N. J., Scholl, R. M., & McLeod, J. M. (2007). Campaign ads, online messaging, and participation: Extending the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676-703.
- Trentham, B., Sokoloff, S., Tsang, A., & Neysmith, S. (2015) Social media and senior citizen advocacy: An inclusive tool to resist ageism?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3(3), 558-571.
-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ageing 2017: Highlights* (ST/ESA/SER.A/397). Retrieved from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pdf/ageing/WPA2017_Highlights.pdf
- Verba, S., Burns, N., & Scholzman, K. L. (2003). Unequal at the starting line: Creating participatory inequalities across generations and among groups. *American Sociologist*, 34(1/2), 45-69.
- Verba, S., Nie, N. H., & Kim, J.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 nation comparis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ba, S., Scholzman, K., &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urm, S., Warner, L. M., Ziegelmann, J. P., Wolff, J. K., & Schüz, B. (2013). How do nega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become a self-fulfilling prophecy? *Psychology and Aging, 28*(4), 1088-1097.

최초 투고일 2018년 10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월 25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월 30일

Abstract

Older adults as citizens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senior voters

Young Min

Professo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As South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developed country, older adults' roles as citizens attract more scholarly attention. To explore what factors underlie senior citizens'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upon the civic voluntarism model, this study conducted a face-to-face interview of a total of 350 senior voters in the 2018 local elections in Seoul. Most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resources such as income and educational levels did not appear as a contributing factor to seniors' participatory citizenship while psychological motivations, especially, internal political efficacy significantly facilitated all kinds of political participation. Self-perceptions of aging also appeared important; positive evaluations of one's own aging experiences led to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me conventional and non-conventional political activities. Whereas effects of recruiting networks such as families and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were not very strong overall, media's mobilizing effects were found to vary depending on the mode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broadcasting media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voting intention while using mobile and internet channels for sharing political messages helped older adults to get engaged in more active political activities.

Keywords: Older adults, civic voluntarism model,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 aged society